JIPYONG NEWSLETTER
법무법인 지평 뉴스레터

JIPYONG
2015년 8월 제54호

▌주요 업무 사례▐

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위한 소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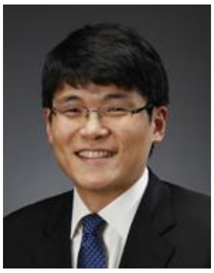
지평과 태평양 등은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, 서울시,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 현재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어,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'시외이동권'을 인정한 첫 판례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한국경제 - [Law&Biz] 태평양·지평의 따뜻한 승소...교통약자 이동권 '한 걸음 더'(2015. 7. 14.)
- 웰페어뉴스 -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차별구제 소송 일부 승소(2015. 7. 15.)
- 에이블뉴스 -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, 법 개정 '촉구'(2015. 7. 24.)

[담당 변호사]

임성택 변호사


김태형 변호사

박호경 변호사

법무법인 지평
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
순천 | 부산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프놈펜 | 비엔티안 | 자카르타 | 양곤 | 모스크바